

민정당 출범을 앞두고 반공화국 정세에

남조선의 윤석열역적계파가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장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 무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 3축타격체계》 구축에 필요한 무기체계개발에 광분하는가 하면 《과학기술강군》의 육

성이라는 미명하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무기체계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과학기술협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무기개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만들어보려 하고있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당황조하여 벌리는 군사적력세만화회음이며 북침전쟁장비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호전적방동이다. 공화국이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무적의 군사적강국이라는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자위력을 웅당한 수준에서 군사적위협과 골종만을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기에 공화국은 자위적전쟁역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틀어쥐고 적극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공화국이 지닌 절대적인 힘이다. 허나 그가 누구이든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을 놓고 근심고민을 하며 불안해할 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계파가 있지않은 그 무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에 필요한 무기체계개발이나, 방위산업의 첨단화나 하는것은 어떻게 하나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상전도 두려워

하며 감히 어찌지 못하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미국의 식민지정착사수인, 대외발에 불과한 윤석열역적계파가 맞서보겠다고 설치는것이야말로 버마제비가 수레를 버티어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계파의 무분별한 군비현대화책동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남조선의 민생고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민적범죄행위이다. 오늘 남조선정세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복합위기를 겪으면서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6월에만도 소비재물가상승률이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 역시 역대 최고에 달하고있다. 과거에 없었던 4대위가 더쳐들면서 대기업의 35%이상과 산직전에 놓이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련달라 폐업당하면서 실업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친문학적역수에 달하는 막대한 현세를 군비확장에 퍼부으려는 윤석열역적계파는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직 동족대결에만 미쳐달려있는 천하역적계파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계파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제 처지도 능력도 모르고 야망에 들뜬자보다 더한 바보는 없으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마땅치마련이다. 윤석열역적계파의 무기개발과 방위산업강화책동은 저들의 비참한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가져다줄것이 없다. **장형범**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탄핵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고 한다. 《대통령》 감투를 쓴지 70여일만에 가련하게도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신세가 된 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리적탄핵심판을 내린 상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무지무능한 아마추어정권》, 《불통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극우보수세력들속에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

장송곡의 전주가 울린다

아내고있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제라도 선거를 다시 치르어야 한다.》, 《윤석열의 퇴진집회를 개최할것이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 것이다.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탄핵의 대상으로 된 현실은 역도와 현 보수 《정권》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환멸과 반감을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한다. 남조선에서 거세어지는 윤

석열역도에 대한 탄핵기운은 윤석열역적계파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광풍, 강권과 전횡, 부정부패정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일러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각계의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의 현세를 쏟아부어 초호화취임식을 벌려놓고 축근인물들과 검찰출신, 부정부패전과자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겨 《검찰공화국》, 《끼리끼리 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들었다. 선거때 내들었던 《장미빛

공약》을 비누거품처럼 날려버리고도 닳뜨겨운줄 모르고 로조화동역제, 로동시간획, 재벌세금인하, 기업규제완화 등 사회의 1%에 불과한 재벌들,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고있었다. 하던 미신에 빠지고 물욕에 환장한 너런네의 치마바람에 말려들어 너런네의 시기, 협잡의 부정추문을 목인조장하고있었던것은 윤석열역도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침전쟁론인 《북주적분》을 부활시키고 《선제타격》, 《단호한

대응》 등 호전적방발을 꺼리검없이 채치면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 대결광풍도, 선입자들도 무색케 할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는 특등사대매국도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이러한 만고역적에게 민심이 침을 뱉고 각계가 반기를 들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동진자에게 차려놓지않고있는 특등사대매국도 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윤석열역도는 장송곡이 울리는 속에 이미 무덤길에 올랐다. **본사기자 주광일**

대결공조나들이로 얻을것은

얼마전 피뢰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개국 위무상회의기간 미국, 일본을 비롯한 회의참가국들과 량자 및 다자회담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한미일3자안보협력확장》 등을 떠들며대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하였다. 그전에 찾아간 어느 한 나라에서는 누구의 《위협》에 대한 대응공조》를 제쳤는가 하면 20개국위무상회의직전에 진행된 제21차 《중견국협의체》 위무상회의에서도 국제적인 대조선압박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분간 못하는 우매한 추태라 해야겠다. 지난 세기초엽 이 땅은 자기들 지킬 군사적힘이 없어 대국들의 리익주주의 각축전장을 외치며 끝내는 왜나라의 식민지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은 세계 무대에서 존엄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지난 3월 주재조선의 절대적립, 군사적강세를 시위하며 용용히 솟구쳐오른 대륙간단도미사일 《화성호-17》형식시험사성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과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였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

는 미국도 자위의 억제력을 지닌 공화국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정의의 부르이며 힘인 공화국을 부러워하고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외세에게 군사주권까지 빼앗긴 식민지 《정권》의 송사리에 지나지 않는 외교부 장관따위가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어찌보려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색은 닭알로 청바위를 깨보려 하는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욱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명성이 외교부 장관인데 하늘에 헤가 났는지 달이 났는지 분간도 못하고 돌아치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회의기간 《국제적동추국가》 흉내를 내며 조선반도 주변나라 위무상들을 좇아다니고 《북핵공조》를 운운하며

폰수없이 늘어대다 랭대와 배척만 당한 꼬락서니 또한 꼴볼거리이다. 반공화국협담과 압박공조로 매달릴한 외교부 장관의 대결나들이는 윤석열역적계파의 병적인 동족대결증상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하자부터 공화국정권을 《주적》으로 삼고 수수방관할수 없는 호전적방동들을 쏟아내며 외세와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았다. 뿐 아니라 권자세기들에게 기개까지 인양주며 반공화국베라살포로 부추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부장들을 내몰아 밖에 나가서까지 남의 나라들에 보내

대결복등을 두드려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역스러운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검찰과 경찰 등을 반공화국대결수동에 내몰다 못해 외교부까지 동족대결부로 전락시키고있는 윤석열역도야말로 극악한 동족대결광, 추악한 사대매국도이다. 온 민족이 윤석열역도를 두고 리명바, 박근혜를 용가하는 반통일대결광이라고 단죄하면서 중요와 경멸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윤석열역적계파가 아무리 반공화국대결수동, 《체제통일》에 메달려도 그것은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의 어리석은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역적계파는 동족을 비방하는 잡소리를 채치며 동분서주할수 없게 하는 수칙과 랭대, 파벌밖에 없었던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문성**

《윤석열이 명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테리고산다.》, 《윤석열은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 후보였던 시기 그의 너런네 김건희가 한 소리이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바보 윤석열》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요즘 너런네가 여

하는것도 모르는척 한다는것이다. 그래놓으니 《대통령실》의 참모라하는것들도 모든 의견을 김건희를 통해 역도에게 보고하고 검찰것들은 김건희의 각종 《국정》개입의혹을 의 면하면서 《김건희수호대》로 자처해나서고있다고 한다.

《국정운영 제1순위는 김건희의 편이보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이겠는가. 그리고보면 윤석열역도가 집권하여 두달 남짓한 기간에 한 일어난 너런네를 위한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이식수사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지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로동운동단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한다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자기의 추문과 부정부패행위를 공개한 진보언론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면 김건

희회의 복수극》으로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너런네의 치마바람에 휘청거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정치는 수렴청정, 《안방정치》 정도가 아니라 《건희정치》인것이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국정》을 휘젓고 거꾸로 윤석열역도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있으니 권력의 자리에는 분명

윤석열이 앉았지만 그를 지휘하는 막후조종자는 《상왕》 김건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 남조선민심이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너자가 남자를 젓혀놓고 모든 일을 위락위락하던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나왔다. 녀성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오

늘의 문명사회에서는 통할리 없는 속담이지만 무지무능하여 초보적인 분별판단기능을 잃은데다 종세기의 미신에 빠져 《너런네의 앞치마》 노릇이나 하는 윤석열역도에게는 참고도 다시 들려주어야 할것이다. 하기는 자질과 능력, 품성과 정신상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바보스럽고 멍청한 윤석열역도는 그 말의 의미를 리해할수도 없을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흰복을 뽐냈던 윤석열, 알고보니 너런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소인배, 너런네의 줄안에서 휘둘리는 《건희마당쇠》 일뿐이다. 역도를 선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회할수 없는 비극이요, 세상사람들에게는 력사의 패지를 들추지 않고도 깨달을수 있게 하는 교훈이 아닐수 없다. **박호남**

《제 2의 을사오적》



누가 《통와대》의 진짜 주인인가

이런 실태임에도 윤석열역도는 김건희를 통해서 못하면 그야말로 큰 변이 날것이다. 김건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이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관리할수 있는 《제2부속실》을 내외야 한다고 충고하는 보수원로들을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인 동에게 일을 맡기는것을 선호한다.》고 두둔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윤석열역도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알아서 처리할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예언》과 《경고》에 따라 윤석열역도는 검찰, 경찰을 내세워 저들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무시해치우거나 무마시키고있으며 도리여 이전 《정부》출신과 야당의 인물들을 직권탐용, 권리행사방해, 부정부패 등의 의혹혐의로 정치보복의 마구잡

회의 앙심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매정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보낼것이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고 회변특거리던 김건희가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겠는가 했던 우리가 윤석열역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김

건희의 복수극》으로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너런네의 치마바람에 휘청거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정치는 수렴청정, 《안방정치》 정도가 아니라 《건희정치》인것이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국정》을 휘젓고 거꾸로 윤석열역도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있으니 권력의 자리에는 분명

윤석열이 앉았지만 그를 지휘하는 막후조종자는 《상왕》 김건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 남조선민심이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너자가 남자를 젓혀놓고 모든 일을 위락위락하던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나왔다. 녀성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오

늘의 문명사회에서는 통할리 없는 속담이지만 무지무능하여 초보적인 분별판단기능을 잃은데다 종세기의 미신에 빠져 《너런네의 앞치마》 노릇이나 하는 윤석열역도에게는 참고도 다시 들려주어야 할것이다. 하기는 자질과 능력, 품성과 정신상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바보스럽고 멍청한 윤석열역도는 그 말의 의미를 리해할수도 없을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흰복을 뽐냈던 윤석열, 알고보니 너런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소인배, 너런네의 줄안에서 휘둘리는 《건희마당쇠》 일뿐이다. 역도를 선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회할수 없는 비극이요, 세상사람들에게는 력사의 패지를 들추지 않고도 깨달을수 있게 하는 교훈이 아닐수 없다. **박호남**

뽐족한 이마뽀와 세쌍의 집개발, 긴 더듬 다니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과 독신, 뽀를 호느적거리는 감각류라고 하면 무엇 독단의 표현입니다. 이 떠오릅니까? 지금 물의를 빚고있는 인사문제만 보아 인차 생각하지 않을수 있어 한마디 더한 도 그렇습니다.

10여명의 검찰출신심복들을 장, 차관의 요직에 앉힌것으로 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이라고 비난하니 《이전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다.》 하고 코방귀를 불어뛴습니다. 너런네회사출신, 자기의 외가 6촌변, 40년지라고 하는자들의 아들들, 이전 집권자를 유하는데 앞장선자의 누이 등 축근들과 친인척들로 《대통령실》이라는것을 꾸려놓고도 이에 대해 비난하는 민심과 여론앞에서 《이전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정면으로 었고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역도는 민심에 역행하면서 암축의 과거에만 정신없이 뒤걸음치고있습니다. 가제는 페지스토마의 중간속주라던데 윤석열이라는 《가제》는 독재광중, 사대중앙, 대결명백과 같은 악성병균만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각계층이 속속합니다.

《윤석열의 인기는 시작하자마자 끝날것 같다.》, 《보수내부에서도 윤석열탄핵이 언급되고있다.》, 《윤석열퇴진집회 개최하자.》 법도 공하면 가제를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남조선민심이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것은 공해사가 아니라 역도의 악행과 악정을 더는 참을수 없기때문입니다. 누구든 역도를 만나면 꼭 말해주십시오. 《여 윤석열, 저승사가 함께 가제.》라고 말합니다. **김정혁**

《윤석열이 명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테리고산다.》, 《윤석열은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 후보였던 시기 그의 너런네 김건희가 한 소리이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바보 윤석열》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요즘 너런네가 여

《로동자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남조선에서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 활발히 전개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계파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일러진것처럼 남조선의 로동계는 윤석열역도의 집권을 계기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안전한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역적계파는 세계경제상황악화, 기업들이 파산되게 된다느니 하

며 로동계의 요구를 묵살해치우고있다. 오히려 쉬운 해고, 최저임금인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 반로동정책을 로 끝화하는 한편 로동계의 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해나서고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가 죽어나는 로동계가 저지하자, 《일하는 사람에게 로 동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주변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전 지역로동자대회가 진행된 이후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가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연이어서 진행하면서 로동계의 반 《정부》투쟁을 고무하고있다. 윤석열역적계파의 반로동정책에 격분한 《한국로총》도 회의를 열고 올해 로동운동의 방향을 협상에서 투쟁으로 전면수정하였으며 6년만에 민주로총과 공동결의대회를 가지고 반 《정부》투쟁을 벌리겠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로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최정선**

